

가을 2014

# PWM

SHINHAN PREMIER WEALTH MAGAZINE





# Exhibition

한국 모더니즘의 단색화를 재조명하다

## 〈단색화의 예술〉

색에도 역사와 민족성이 있다. 한국의 단색화는 '국전'으로 대표되는 아카데미한 미술에 대한 반동으로 비롯되었다. 국제갤러리는 한국 미술의 대표적인 성과로 평가받고 있는 단색화와 이 흐름을 이끌었던 거장들의 작품을 중심으로 한국 모더니즘의 맥락에서 단색화를 재조명하는 〈단색화의 예술〉전을 연다. 이번 전시에서는 1970년대 단색화 운동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 김기린, 박서보, 윤형근, 이우환, 정상화, 정창섭, 하종현 등 일곱 작가의 작품을 선보임으로써 1970~80년대에 제작된 초기 단색화를 중심으로 한국 단색화 운동의 생생한 면모를 보여주고자 한다. 특히 한국 단색화의 요체로 손

꼽히는 정신성, 촉각성, 행위성이 일곱 작가의 작품 속에 고르게 스며 있고, 이들이 하나의 장 안에서 서로 겹치거나 스며드는 가운데 궁극의 지점을 향해 나아가는 것을 보여주고자 한다. 이번 전시는 서구 사회를 모델로 성장 제일주의를 구가했던 당대 사회상과 급변하는 정치적 상황 속에서도 순수한 예술적 혁신을 위해 전위 정신으로 총일됐던 단색화 작가들의 작품 세계를 재조명한다. 이를 통해 동시대 해외 미술의 현장 속에 적극적으로 모습을 드러낸 단색화 운동의 모습은 물론, 세계 미술사의 맥락 속에서 한국 단색화의 가치와 의미를 가늠해볼 수 있을 것이다.

일시 10월 19일까지 장소 국제갤러리



© Lee Chan (1936-), From Point, 1983, oil on canvas, 194 x 160cm.  
Image provided by Kukje Gallery, Photo Kim Sang Tae